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버스·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생산 검토 ... 2012년 가동 ASEAN 공략

한국타이어가 인도네시아에서 래디얼 타이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일간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세계 굴지의 타이어 제조기업인 한국타이어는 6억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버스과 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공장을 건설해 ASEAN 시장 공략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타이어제조업체협회의 아지스 빠네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6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센티브 등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협상이 2010년 마무리되면 2012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며 “한국타이어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버스과 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공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제 6공장이 될 인도네시아 공장의 위치와 생산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 2위 천연고무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 타이어 공장 입지로 적합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7>